

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렇게 예방하세요

- 집중호우 시기 바이러스 유입 차단 중요

- 시설 점검·차단방역이 핵심...양돈농가 대상 예방 수칙 집중 안내

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, 아프리카돼지열병(African Swine Fever)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.

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.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, 감염 시 치사율이 100%에 이른다.

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2025년 들어 현재까지(6월 기준) 총 3건이 발생했다.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.

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,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.

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, 울타리,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.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.

야생 멧돼지,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. 축사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

을 정비하고, 주기적으로 해충을 방제한다.

농장 출입구는 가급적 한 곳으로 지정하고, 출입 차량 하부, 타이어, 작업자 장화 등은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검증된 소독약으로 철저히 소독한다. 외부인 농장 출입은 최소화하며, 작업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반드시 착용한다. 축사 간 이동 시 장화를 교체하는 것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.

사료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 빗물이나 곰팡이, 해충으로부터 보호한다.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되,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소독제를 물에 타 제공한다.

장마철이 지나면 축사 입구, 배수로, 울타리, 소독시설 등을 살펴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,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.

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강석진 과장은 “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, 평소 방역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.”라며 양돈농가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.

붙임. 방역 사진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	책임자	과 장	강석진 (063-238-7220)
		담당자	연구사	유아선 (063-238-7227)
				

